

AI Fuhr 박사, 전도서, 세션 2

© 2024 알 푸어(AI Fuhr)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서를 생각할 때 바로 떠오르는 것은 1장과 2절의 서두입니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에서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이 허영심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는가? 전도서 전체에 걸쳐 38번이나 반복됩니다. 다른 현대 영어 번역에서는 NIV에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번역되었거나 일부 다른 번역에서는 약간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무익함 또는 무익함은 특정 영어 번역에서 찾을 수 있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NIV에서 볼 수 있는 허무함, 무의미함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실제로 히브리어 단어 hevel 입니다. 문자 그대로 안개나 증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 유명한 성경 교사는 이것을 비눗방울이 터진 후에 남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안개, 수증기, 높이 라는 개념은 실제로 우리가 전도서를 읽는 방식을 프로그램화하는 그 자체의 아우라를 띠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 해석의 궤적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이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hevel을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한다면 나머지 부분도 잘못 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의에서 이 키워드와 전도서에서의 그 기능,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는 이 키워드를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전도서에서 그것은 프로그래밍 용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과 1절, 또 영어 성경 읽기를 위한 NIV가 내 앞에 있는데, 읽다 보면 의미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kohalet) 라는 것을 보았고 이것이 이 책에서 우리의 주요 인물입니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NIV 전체에서 hevel 이라는

단어가 무의미한 것으로 번역된 것을 본다면 아마도 전도서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관한 책이라고 가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마도 무의미하거나 목적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찾는 것은 삶에 의미와 성취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전도서에서 히브리어 단어가 전달하거나 의미하려는 의도라면 훌륭합니다. 우리는 전도서에서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무의미함을 의미하지 않거나, 하나님 없는 삶이 목적이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전도서의 나머지 부분을 읽는 방식에서 우리는 쉽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단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내가 이미 언급했듯이 이 단어는 안개나 증기를 의미하지만 구약에서는 은유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은유적으로 사용됩니다. 은유는 여러 아이디어를 단일 용어로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은유와 관련된 모호함이 있지만, 이러한 모호함은 용어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나 특정 단어 뒤에 있는 문자 그대로의 설명 범위를 넘어서는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에는 하나님이 반석이나 요새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해당 설명에는 바위와 관련된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저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말할 때, 저자는 실제로는 독자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반석과 같다는 다양한 방식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각을 전달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과 연관시키십시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반석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밀도가 높다거나, 무겁다거나, 단단하시다거나, 화성질이시거나 퇴적물이시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확고하시다거나, 하나님이 안정하시다거나, 하나님이 확실한

기초가 되신다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만 확실히 무제한적인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hevel, 안개 또는 증기 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이며 그는 그 능력, 즉 여러 감각을 활용하는 은유 내의 고유한 능력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전도서에서 이 단어를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헬벨 개념은 실제로 타락한 세상에 사는 삶의 특정 측면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맥락에서는 강조되거나 중심이 되는 타락한 세상에 사는 삶의 또 다른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은유의 사용에 있어서 다중적이거나 유연한 의미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 실제로 코헬렛은 심지어 단일한 맥락에서도 두세 가지 감각을 활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도서에서 이 히브리어 단어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하고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이 단어의 사용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전에 이 단어가 구약의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약어 연구를 수행하면 실제로 hevel이라는 단어가 다음 을 통해 더 잘 이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다른 곳에서 사용됨.

예를 들어, 히브리어 단어 hevel은 삶의 덧없음이나 덧없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시편에서 그 점을 봅니다. 시편 144편과 4절에 보면, 사람은 장대 와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hevel 이라는 단어는 좀 더 문자 그대로의 의미인 호흡을 뜻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번역이 일시적이라는 의미로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읽힐 것입니다. 인간은 자루 와 같고 , 그의 날은 자루 그림자 와 같습니다 . 사람은 호흡과 같고 안개나 수증기와 같으며 그의 날은 덧 없는 그림자와 같으니라.

인간 삶의 덧없음을 지적합니다. 또는 시편 39편 4절과 5절에서 여호와여 내 생명의 종말을 알게 하시고 나의 날과 나의 날수를 계수하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 내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려주세요 . NIV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내 하루를 단순한 호흡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내 인생이 아무 것도 아닐 것입니다. 각 사람의 생명은 한 덩이 요, 한 숨뿐이니라.

다시 말하지만, 거기에 있는 생각은 상황에 따라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지, 삶의 무의미함이나 목적 없음이 아니며 실제로 허영심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각 사람의 생명이 헛되지 않고 오히려 각 사람의 생명이 덧없느니라.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나의 하루의 수.

시편 39편 11절, 주께서 사람의 죄악을 꾸짖으시고 징계하시니 저희 재물을 이끼 같이 소멸하시니 사람은 호흡뿐이오니이다.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덧없음이라는 개념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옅은 자신의 인생을 덧 없는 것으로 여겼고, 영원히 살지 못할 것이라는 문구와 병행하여 배열된 것입니다.

NASB에서 이 내용을 들어보세요. 욥기 7장 16절, 내가 쇠약하여 영원히 살지 못하리로다.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나의 하루는 아주 짧 습니다 .

나의 하루는 단지 한숨에 불과하며 문자 그대로의 번역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여기서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루는 숨결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hevel이라는 단어는 종종 헛된 것, 헛된 것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즉각적인 성과나 이익이 발견되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전도서에서 여러분은 헛되고 헛되다는 번역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서에서 덧없는 천박함 의 성격이 강조되고, 또한 천박함 에 대한 헛된 느낌이 다른 맥락에서도 강조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NASB는 욥기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악한 자로 여김을 받았으니 어찌 내가 지옥 에서 수고하리이까 ?” 그것은 수고의 일시적인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성취할 수 없는 일을 위해 수고한다는 헛된 의미입니다.

또는 예를 들어, hevel이라는 단어가 희망이 없거나 그런 의미에서 헛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9절과 10절에도 NASB에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낮은 자들은 단지 하찮고 헛되고 높은 자들은 거짓이니라." 위로 올라가면 둘 다 합쳐서 높이 보다 가볍습니다 .

품지 말라 .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따라서 여기서는 사물의 덧없음이나 일시적인 성격을 많이 다루지 않고 오히려 성취되는 것에 대한 헛된 절망감을 다루고 있습니다.

hevel 이라는 단어가 아마도 가장 잘 감지되거나 허영이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다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욥기 21장과 3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로 하겠느냐 ? 그러면 너희가 어찌 나를 헛되이 위로하겠느냐? 당신의 대답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위로는 욥을 위로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hevel 입니다 . 혹은 욥기 27장 1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면 왜 심하게 행동합니까? 당신의 말과 언어로 헛되게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욥은 욥기 35장 16절에서 입을 열어 “공허하고 헛되이 지식 없이 말을 많이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노력의 부족함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우상을 묘사하기 위해 hevel 이라는 단어를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미혹의 징계에 있어서 모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Hevel은 나무입니다. 그들의 우상, 그들의 쓸모없는 우상은 나무입니다.

비를 내리는 민족의 우상 중에 비를 내리는 자가 있느냐 ? 아니면 하늘이 소나기를 허락할 수 있습니까? 주 우리 하나님이며, 당신이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에게 희망을 둡니다. 그래서 우상은 hevel 입니다 . 그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비나 다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헛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9절, 보라 내 딸 내 백성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라. 주님은 시온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왕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그들이 새긴 신상과 외국 조각품 과 외국 우상으로 나를 노엽게 하였는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

구약성서에서 이 간단한 조사를 통해 안개, 증기, 호흡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방법에 상당한 유연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유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들. 이제 전도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중대함을 어떻게 언급합니까? 글쎄요, 전도서가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의미의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의미의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다양한 가족 중 일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의미의 가족들은 모두 타락한 세상에 사는 삶의 다양한 측면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타락이 실제로 비천함의 본질이라는 생각을 지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도서에서 코헬렛이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이러한 의미의 계열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성서에서 hevelness가 덧없는 본성을 언급하거나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예를 보았습니다.

삶의 일시적인 것. 확실히, 필멸의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녹화 당시 저는 44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대학 환경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젊음을 보니 20년 전 제가 20대였을 때를 생각해 보면 더 젊고 운동능력이 뛰어나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는 60대 동료 몇 명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20대에 운동선수였으며 세미프로 야구를 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들을 보면서 그 강자들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 말은, 우리 모두는 이런 종류의 노화 경험을 공통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제가 아마 20세쯤 되었을 때 교수님이 계셨고 그 분은 70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화는 계집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는 인류의 공동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찰나입니다. 그리고 나이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 일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내 어린 자녀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하고 불멸의 세상에서의 삶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이다.

전도서에 나오는 이러한 예 중 일부를 저와 함께 살펴보십시오. 그곳에서 인생의 덧없고 짧은 성격 에 관해 관찰한 바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전도서 6장과 12절. 전도서 6장과 12절.

짧은 시간 동안 인생에서 사람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은 무의미한 날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찰나의 날입니까? 나는 그것이 일시적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짧은 며칠 동안 그는 그림자처럼 지나간다. 그림자처럼 스쳐가는 동행어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요즘의 덧없음, 혹은 찰나의 찰나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 의 모든 날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인생을 즐기십시오 . 우리가 인생을 즐기고 청춘의 나날을 즐기는 것이 무의미한 삶입니까? 아니 오히려 덧없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네게 주신 이 평신도 의 모든 날 동안에

나는 아마도 일시적이라는 생각이 가장 앞장서 중앙에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혹은 11장 9절. 청년이여 젊을 때에 행복하라. 여기서 무대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젊음의 날에 네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네 마음의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따르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괴로움을 내버리라. 젊음과 활력이 중요합니다. 젊음과 활력은 의미가 없나요? 젊음과 활력이 헛된가? 글썄요, 어떤 의미에서는 젊음과 활력이 이런저런 일을 할 충분한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코헬렛은 젊음과 활력의 덧없는 성격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20대의 젊음과 활력이 넘치던 때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대인 지금도 여전히 기분이 꽤 좋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히브리어 단어 hevel이 잠언 31-30장에 나온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곳은 hevel 입니다. 아름다움은 헛된 것인가? 뭐, 어떤 맥락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아름다움은 일시적인가? 어쩌면 다른 맥락에서 미스트나 증기를 더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안개이거나 수증기이다. 아름다움은 숨결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호흡과 같은 걸까요?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그리고 그것은 은유의 마법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다양한 아이디어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눈에 띄는 아이디어가 최전선에 떠오릅니다. 허영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헛된 노력을 가리킬 수도 있는 hevel 뒤에 있는 의미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또는 실제로 성취를 찾지 못하는 노력.

때로는 인간의 노력, 어쩌면 지혜의 적용조차도 삶의 비참함이라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코헬렛은 헤벨의 딜레마에 대한 일종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종종 바람을 쫓는다는 뜻의 동반 문구와 관련된 hevel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쫓는 생각은 헛된 노력임을 가리킨다. 좋아요? 그래서 그것은 찰나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목표를 실제로 찾거나 성취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허영심, 헛됨, 무익함이 실제로 최전선에 있는 아이디어일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2장 11절. 그러나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을 돌이켜 보면 이것은 코헬렛의 자서전적 증언에 따른 것인데, 그는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었고 또 이런 일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손이 한 일과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보았으니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요 아무 것도 얻지 못한 것이요 이 트론이 없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키워드이다 단 몇 분 만에 여기를 탐험할 예정이며, 태양 아래서 얻은 것입니다. 태양 아래에는 이트론이 없었습니다 .

그래서 모든 것이 hevel 이었습니다 . 그러나 목표를 추구하면서 그는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헛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덧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헛된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나와 함께 2장과 17절을 살펴보세요. hevel 이라는 단어에서도 이 개념과 동일한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나는 인생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나에게 괴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쫓는 것 입니다 . 다시 말하지만, 동반 문구는 헛된 노력이 여기서 최전선에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또는 26절에서 코헬렛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모아 쌓게 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느니라” . 이것도 바람을 쫓는 헬벨(hevel) 이다. 아마도 허영심에 대한 생각이 최전선에 있을 것입니다.

hevel 이라는 단어를 찾을 때 아마도 다음 정의 계열인 불합리함을 부분적으로 염두에 둘 수도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는 4장과 4절에서 몇 가지 예를 더

볼 것입니다. 무거움 과 관련된 바람을 쫓는 동행어구의 .4장 4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성취가 사람이 이웃을 시기하는 데서 비롯됨을 내가
 보았노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바람을 쫓는 헬벨(hevel) 이다. 그것은 Joneses의 아이디어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아서 결국 성취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헛된 일이다. 아니면 8절에 한 사람이 혼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도 형제도 없었습니다.

그의 수고는 끝이 없었으나 그의 눈은 그의 부에 만족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는 축적하고, 축적하고, 축적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는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고 있으며, 왜 나 자신의 즐거움을 박탈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 역시 비참한 사업인 hevel 입니다.

무엇이든 성취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동반 문구인
 비참한 사업과 관련된 부정적인 판단을 보게 될 것인데, 이는 실제로 또 다른
 의미 계열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는 무거움이 인생의
 덧없음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evelness가 특정 작업이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의
 허영심을 가리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또한 Kohelet이
 단순히 hevel 이라고 부르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관찰과 경험에 관해 내린 판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는 사물의 부조리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물에 일종의 무의미함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 세상에는 인간의 이성을
 모욕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물의 심각성은 항상
 일시적이거나 일시적인 경험이나 헛된 노력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타락한 세상에서 일이 일어나는 방식의 부조리함을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아마도 전도서 8장과 14절에서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8장과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땅 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인은 악인의 벌을 받고, 악인은 의인의 벌을 받습니다.

이것도 hevel 입니다 . 나는 우리 대부분이 자신의 삶에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모두는 코헬렛처럼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고, 시편 기자가 표현한 것처럼 땅에서 끊어지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명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코헬레트는 계속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타락한 세상, 심지어 주권적인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타락한 세상에도 이성을 모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플레이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게는 좋은 친구이자 멘토이자 매우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몇 년 전에 흑색종 암에 걸렸습니다. 뇌 수술을 포함해 세 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복되었으나 차에 치여 지난 몇 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휠체어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사람을 방문했는데, 속으로 '이 사람이 헤벨 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친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가족의 가장이 이런 운명을 겪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그는 이런 일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Kohelet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hevel 입니다 .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쇼를 주관하신다고 믿는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우리를 은유 hevel 의 능력으로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는 의미의 마지막 계열로 인도합니다 .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부정적인 판단입니다.

hevel이 사물의 좌절감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방금 친구의 증언으로 제안했는데, 그것은 단지 지적인 무의미함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사람이 그럴 자격이 없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것은 단지 신학적 딜레마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끔찍한 일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코헬렛이 말했듯이, 그것은 심각한 악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화나게 만든다.

이 세상에서 불의를 볼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헬렛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노력이 헛되고 헛된 것으로 판명되는 것을 봅니다. 그는 터무니없는 일, 즉 인간에게 모욕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다소 아이러니하고 때로는 수수께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것이 마땅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화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 즉 인간이 테이블에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혜에서도 지혜가 여전히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고 삶의 경증함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에게 끝없는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현명한 사람 코헬레트가 여행을 찾고 쫓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전도서는 삶의 무거움과 제가 무거움의 딜레마라고 부르고 싶은 것을 탐구하고,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 속담을 통해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무거움의. 이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이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전도서에서 우리는 몇 가지 단서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장과 3절에는 일종의 의문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수사적 질문이 아니라 코헬렛이 이 지혜 안에서 수행하는 탐구에 대한 탐구를 위한 무대를 설정하는 의문문이라고 믿습니다. 책.

모든 것을 최고로 무겁게 선포한 후 3절에서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로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제 이 구절에는 핵심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득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이 트론(yitron)이다.

일부 번역에서는 이트론을 이익으로 번역합니다.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잉여를 번역합니다. 실제로는 hevel 과 같은 단어인데 , Kohelet이 자신의 탐구에 이 단어를 적용한 것 같다는 점에서 다소 까다롭고 유동적입니다.

Yitron은 일종의 잉여, 장점, 이득인 것 같습니다. 상품 거래에서 발견되는 단어일 수도 있고, 남겨진 단어일 수도 있으므로 번역 이익 또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코헬렛은 물물교환이나 거래 또는 그러한 종류의 거래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 라는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

비천함 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지혜가 식탁에 가져올 수 있는 잉여 이득이나 이점이 있습니까 ?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의 계획을 정하는 의문 질문에서 인간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 무슨 이트론이 들어있는지 발견 합니다 . 아니면 3장과 9절에서 다시 찾으려면 일꾼이 무엇을 얻습니까? 그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로 얻은 이트론이 무엇이나 ? 우리는 코헬렛이 그의 사색과 숙고, 경험, 성찰을 통해서는 이트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사실, 책 초반부 2장과 11절에서도 우리는 이 트론이라는 단어 , 즉 실제로 10절을 발견합니다. 10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내 눈이 원하는 어떤 것도 부인하지 않았고, 내 마음의 즐거움도 거부하지 않았습니 다.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니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의 삿이로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일과 내 손이 한 일과 내가 수고하여 이루려고 한 일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이 바람 을 쫓는 헛된 일이었다라.

태양 아래에서는 이트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 다 . 코헬렛은 실제로 전도서에서 자신이 찾고 있는 내용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가 이트론을 찾는 것에서 토브 (tov)를 찾는 것, 좋은 것을 찾는 것으로 접근 방식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

전도서 전체에 걸쳐 히브리어 단어 토브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면서 자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 토브인지, 무엇이 좋은지 찾는 데 대해 자주 반성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헤벨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인 이 트론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지혜는 인간에게 어떤 형태의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테이블에 가져올 수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6장과 12절에서 일어나는 탐구에 일종의 전환이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트론에서 어떤 토브까지? 인생에서 사람이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이 짧은 날들 동안 토브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혜가 문제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인간에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좋은 무엇인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는 하나님의 영감받은 성경에서 정경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도서가 타락한 세상에 살기 위한 패러다임을 설정하면서 매우 실용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관련성이 있고 엄청나게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우리는 전도서가 인류의 딜레마, 저주, 이 세상의 타락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건 그렇고, 나는 어쩌면 내가 타락함과 타락함을 연관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에 창세기에 대한 상호 텍스트적 참조라고 부를 수 있는 참조가 너무 많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코헬렛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태를 초래한 상황을 거듭거듭 숙고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모두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필멸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추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간 이성에 대한 모욕이 일어나는 일들을 발견하고, 부정적인 판단을 선포하고 이것이 단순히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이래서는 안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과하신 일로 인해 좌절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해결책을 원하더라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지혜가 테이블에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해결책인 이 트론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 없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전도서가 계시지식을 통해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성경은 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 것은 지혜가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였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가 아닌 로마서에 있는 헬라어에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과 2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부패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이 현재 세상과 우리 모두가 바라는 미래의 구속된 세상에서 그는 실제로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번역인 헬라어 칠십인역에서 히브리어 단어 hevel 을 번역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8절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물이 하찮게 굴복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타락한 현재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NIV 로마서 8장 20절에서는 좌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피조물이 멸망하게 된 것은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의 뜻대로 되었느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전도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모티프 중 하나는 인간에게 제한을 가한다는 사상이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 부과된 제한을 가져오는 데 적극적인 주체이십니다. 창조물이 좌절되는 것은 그 자신의 선택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의 뜻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는 피조물 자체가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느니라 하나님. 과연 헤벨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글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헤벨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단지 지혜의 적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좋은 것을 제공하고 좋은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서에서 코헬렛이 이

매혹적인 책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지혜가 식탁에 가져오는 좋은 것들 중 일부를 탐구할 것입니다.

전도서를 이해하려면 '헤벨'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나는 이 짧은 강의를 통해 전도서에서 38번이나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hevel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삶의 어떤 측면을 가리키는 의미의 변화를 제공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된 단어를 보고, 삶의 타락의 어떤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미묘하고 유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책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책의 마지막 메시지.

그래서 저는 이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히브리어 단어를 더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다. 감사해요.

아시다시피, 비디오 테이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착륙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행히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좋았어. 별 생각도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제네시스와 상호텍스트적인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어쨌든 내 머리는 거기서 가고 있었다. 응.

그리고 그것을 묶어서 생각했죠. '이건... 글썄요, 그런 걸 모티브로 삼지는 않았지만 엄청나네요. 내 말은, 전도서를 통해서만 작업한다면, 일종의 상호텍스트 언어가 있는 곳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과 함께. 창세기 3장과 함께. 내 말은, 전도서의 저자가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응, 다시 얘기해봐

아마도 당신은... 그래. 나한테... 그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응, 응. 뽑아내는 물건입니다. 응. 정말 매력적이네요.

이를 위해 작성된 몇 가지 기사가 있습니다. 응. 꽤 깔끔합니다.

네, 그건... 사실, 아담과 인간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점에서도...